국왕이 국민 설득해 민주주의 전환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

⑥ 부탄의 왕실

부탄의 파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해 공항 내부에 들어서면 곳곳에서 부탄 국왕 사진을 볼 수 있다. 식당도, 호텔도, 가정집에도, 마치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걸어놓듯 온갖 곳에 국왕과 왕실 사진이 걸려 있다. 혹시 북한처럼 강제적인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부탄인들 스스로 국왕의 사진을 구해 걸고, 국왕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닌다. 한때 리더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과거를 빗댄다면 익숙지 않은 장면이겠지만 이곳은 진정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왕실이 있다.

이원정부로 문을 연 부탄

CNN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21세기에도 전 세계 43개국에는 여전히 왕과 왕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왕'이라는 직위에 걸맞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전제군주제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33개국은 이웃나라인 일본처럼 실질적 국가 통치는 총리가 맡고, 국왕은 상징적 의미만 갖는 입헌군주제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개 주로 나뉘었던 부탄
히말라야 정세 악화 따라
1대 국왕 선출에 뜻 모아

왕실 재산 국민에 나누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부탄은 인류역사상 국왕이 스스로 국민을 설득해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다. 국왕은 "왕이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국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왕실이 국민통합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 가치를 중시해 자자손손 이어지는 왕실은 빠르게 교체되는 정치인과 대비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정치인들이 이전투구에 몰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왕실의 절제되고 품격 있는 모습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원인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구순 생일, 샬롯 공주의 첫돌에 국민들이 울고 웃으며 영국 전체가 축제분위기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왕실의 존재는 국가 혼란을 막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태국에서는 군부의 힘이 막강해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뒤집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만, 성공 여부는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 받는 푸미폰 아둔야뎃(1946~현재) 국왕의 승인에 달렸다. 실제 국왕이 승인하지 않은 1981년, 1985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태국 국왕의 중재가 없었다면 민주정부와 군부의 갈등이 핏빛 내전으로 확산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벨기에 왕실도 네덜란드, 독일어권 지역으로 나뉘어 지역감정이 심한 벨기에에서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연재에서 16세기 부탄을 건국한 샵둥 스님의 건국이념이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소개했다. 부탄의 모든 리더들은 이 뜻에 따라 통치했다. 그런데 부탄 탁상사원에서 파드마삼바바가 수행한 것이 7세기, 또한 송첸감포왕이 부탄에 키추사원을 창건한 것도 7세기. 약 1400년 전 일이고, 샵둥 스님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이 16세기 일인데 현재 국왕은 5대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부탄의 독특한 정치시스템을 들여다보자.

샵둥 스님이 불교 이념에 따라 나라를 건국하기 전, 부탄은 여러 작은 지역이 모인 봉건국가였고 하나의 중심된 정부가 없었다. 샵둥 스님은 건국하면서 이원정부 조직을 구상했는데 티베트의 경우 달라이라마가 정치와 종교 수장이 되는 반면, 부탄은 이를 둘로 나눴다. 즉 둑 데씨(Druk Desi)라고 불리는 총리에게 정치를 맡기고, 제 켄포(Je Khenpo)라고 불리는 국사 스님에게 종교 수장을 맡겼다. 이처럼 부탄은 이원정부로 운영이 이뤄졌고 둑 데씨는 1대 텐진둑계(1591~1655)부터 54대 촐레예셰응둡(1851~1917)까지 있었으며, 제 켄포는 현재 70대까지 이어졌다.

20세기 초, 왕실의 탄생

당시 둑 데씨가 정치를 맡아 다스리던 부탄은 20개 주의 주지사가 각 지역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티베트가 중국에 의해 공산화 되고 무스탕왕국이 네팔에 의해, 라다크왕국·시킴왕국이 인도에 의해 합병되는 등 히말라야 지역 정세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에 20세기 초, 20명의 주지사들이 모여 한 명의 국왕을 선출하기에 이른다. 당시 총사(Trongsa)지역 주지사였던 우겐 왕축이 만장일치로 추대됨에 따라 통일부탄의 제1대 국왕으로서 착좌식을 갖게 된다.

특히 4대왕 직메 싱계 왕축은 부탄의 대명사로 알려진 '국가총행복지수'를 제창한 국왕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2008년, 헌법을 고쳐 부탄을 민주주의 입헌군주제 국가로 전환한 국왕은 아예 국왕 자리도 젊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거대한 왕궁은 정부에 돌려줬다. 이어 2008년 첫 국민투표 총선을 바라보며 민주주의 부탄의 길을 두 눈으로 지켜봤다.

현재 국왕 직메 케사르 남곌 왕축 역시 아버지 가르침을 따라 어린 시절 결혼을 약속한 평민출신의 제쭌빼마와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 주로 사회사업 등에 몰두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왕실소유 재산과 토지를 국민들에게 나눠줘 국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도왔고, 인근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왕실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왕실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국왕은 4대 선왕이 그랬듯 부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 올 초에는 해발 7000m 고산지대를 장비 없이 3주간 다니며 고산마을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팀푸체추(축제) 기간에는 국사스님과 함께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의식을 치르며 국민들과 시간을 보낸다.

부탄 국왕은 항상 부처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재가자임에도 가사를 수한다. 부탄 모든 국민들이 사원에 방문할 때 남자는 '깝네', 여자는 '라츄'라고 불리는 가사를 수하는데 일반 국민은 백색, 오로지 국왕과 국사스님만 노란색 가사를 수한다.

한편 2016년 부탄 왕실에는 큰 경사가 생겼다. 바로 미래 6대 왕이 될 왕세자가 태어난 것.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왕실 근거지인 총사의 종에서 상징적인 주지사로서의 착좌식도 열렸다. 왕세자의 미소는 국민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위로는 불법승 삼보를 모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위해 군주제의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한 부탄. 한 국가의 리더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부탄 왕실은 정신적 지주가 없는 오늘날 한국에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만 같다.



역대 부탄 국왕의 얼굴을 한 곳에 정리한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대 우겐 왕축, 2대 직메 왕축, 3대 직메 도지 왕축, 4대 직메 싱계 왕축, 5대 직메 케사르 남곌 왕축.

5대 국왕 직메 케사르 남곌 왕축과 제준빼마 왕비의 결혼식 모습.

2016년 태어난 왕세자.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m, 6m, 7m, 8m, 10.5m, 13m, 20m, 30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전 선 시 공